

간호대학생의 자기결정성동기, 대인관계조화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민숙¹, 송미순^{2*}¹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대전원명학교 교사

The Effect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nd Interpersonal Harmony on the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Min-Suk Kim¹, Mi-Soon Song^{2*}¹Department of Nursing, Baekseok Culture University²Daejeon Wonmyeong Special School

요약 본 연구는 COVID-19 시기에 간호학과에 입학한 신입생의 자기결정성동기, 대인관계조화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확인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 수집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연구대상자는 C 시에 소재한 대학교의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신입생 220명이다. 자료 분석은 SPSS 25.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및 Scheffé 사후검정,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산출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1학기에 대면수업 경험, 전공선택이유, 자기결정성동기와 대인관계조화가 학업적 자기효능감 총변동의 47.9%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11학기 1개 교과목 이상 대면 수업, 자기결정성동기와 대인관계조화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기결정성동기를 지지하고 대인관계를 조화롭게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 자기결정, 대인관계조화,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호대학생, COVID-19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determine the degree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freshmen admitted to the nursing department during the COVID-19 period,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academic self-efficacy.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01 to November 30, 2021, an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20 freshmen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a university located in C city. For data analysis, t-test, anova and scheffé's post hoc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calcu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5.0.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face-to-face learning experience in the first semester, the reason for choosing a major,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explained 47.9% of the total change in academic self-efficacy. And it was found that freshmen with face-to-face learning in the first semester,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nd interpersonal harmon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academic self-efficacy. In order to improve the academic self-efficacy of the first year, a program to support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nd harmoniz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Key Words : Self-determination, Interpersonal harmony, Academic self-efficacy, Nursing students, COVID-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대학은 중·

고등학생 시절의 학습과는 달리 조금 더 자율적이며 자기 주도적인 과정을 통해 조금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요구한다[1]. 대학생은 대학이라는 사회 조직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대학 생활과 삶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2]. 그리고 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며 성장해 나간

*Corresponding Author : Mi-Soon Song(trsong@hanmail.net)

Received August 3, 2022

Accepted November 20, 2022

Revised August 23, 2022

Published November 28, 2022

다. 대학 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은 불성실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학업에 임하거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기도 한다. COVID-19 상황은 교육 현장에 많은 혼란과 변화를 가져왔으며, 대학생은 온라인교육과 교육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교내에서의 다양한 활동이나 사회적 교류에 제한을 경험했다. 대학알리미[3]에 공시된 신입생 중도 탈락 현황을 보면, COVID-19 이전인 2019년도에는 신입생 중도 탈락률이 전문대학 10%, 대학교 7%였으나, COVID-19 이후인 2021년도에는 각각 14.6%, 8%로 전문대학의 신입생 중도 탈락률이 대학교보다 더 많이 상승하였다. 이는 COVID-19 시기의 신입생과 관련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신입생 탈락률을 간호학과에 적용하는 데에 제한점은 있지만, COVID-19 시기에 입학한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적성이 아닌 취업이나 주변 권유에 의한 경우일 때 전공만족도가 낮고 대학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4]. COVID-19 상황에서 교우관계나 학습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간호학과 신입생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신입생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전략이 요구된다[5]. 신입생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환경에서 학습자가 내재적으로 동기화되거나 외재적 동기를 내면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6].

자기결정성동기는 개인의 학습 동기를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 인간은 연속적이고 세분화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며 학습 선택과 결정에 개인의 자율적 행동이 반영된 수준을 의미한다[7]. 자기결정성동기는 학습자가 내적으로 동기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습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 발현된 동기이며[8], 자율성을 근간에 핵심으로 두고 개인이 행동으로 옮기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요인이다. 동기가 어떠한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는 과정이 달라지며, 표출되는 행동 또한 달라질 수 있다[9]. 행동 조절의 원인을 행위자가 스스로 결정했다고 지각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에 참여하지만, 행동 조절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느끼면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10]. 자기결정성동기는 긍정적인 자기인식이나 자기효능감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1], 특히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로 자기조절 학습 능력과의 상관성에 대해 연구되어[12,13]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와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간호대학생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과 간호사 국가시

험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가 높고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 동기가 더욱 요구되므로[14] 간호학과 신입생의 자기결정성동기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초기성인기로 진입한 대학생은 다양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Erikson은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을 초기성인기의 발달과업으로 보았다[15]. 대학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공감, 이해 그리고 솔직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15]. 이는 또한 대학 생활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15]. 대학생은 타인과 건전하게 대인관계를 하면서 성인이 되는 것이다[16]. 대인관계는 타인과의 지속적이고 복잡한 상호작용을 의미하지만, 대인관계조화는 타인과의 상황에서 개인의 정서, 인지, 행동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자신과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조화로운 상태이며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17,18].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이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공허함과 고립감 등의 심리적 혼란으로 대학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19]. COVID-19 상황으로 인한 온라인 교육은 대면 수업에 비해 신입생에게 다른 학습참여자들과의 조화로운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인관계조화와 관련된 연구에는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련성[20], 의사소통과의 관련성[16]이 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와의 관련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지식과 수행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학습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어려운 학습상황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과제를 완성하도록 유도한다[21]. 간호대학생이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자신감을 향상하기 위한 자기효능감이 전제되어야 한다[22]. 자율성, 관계성, 유능감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충족될 때 학습에 대해 긍정적이며[23]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자기결정성 동기, 대인관계 조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관련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자기결정성동기, 대인관계조화와와의 관련성을 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COVID-19 상황에서 간호학과에 입학한 신입생의 자기

결정성동기, 대인관계조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확인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토대로 간호대학생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간호학과에 입학한 신입생의 자기결정성동기, 대인관계조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확인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자기결정성동기, 대인관계조화,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확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자기결정성동기, 대인관계조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간호학과에 입학한 신입생의 자기결정성동기, 대인관계조화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확인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C 시에 소재한 2곳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년을 대상으로 편의 모집하였다. 교내실습이나 COVID-19 이전에 1학기 이상 대면으로 수업을 경험한 2학년 이상은 제외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설문 내용을 이해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독립변수 8개를 입력하여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160명으로 나타났다. 회수율과 응답 충실도를 고려하여 총 22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미완성된 4개의 설문지를 제외한 220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내용은 연령, 성별, 1

학기 대면수업 경험, 2학기 대면수업 경험, 전공선택동기, 1학기 성적을 포함하였다.

2.3.2 자기결정성동기

자기결정성동기 측정도구는 Ryan과 Connell [9]이 개발한 설문지를 기초로 Park 등[24]이 개발한 척도를 Cha와 Eom [25]이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부요인은 확인된 조절동기와 내재적 조절동기로 구성되어 있다. 확인된 조절동기는 학습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고 선택에 의해 학습을 수행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이며, 내재적 조절동기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에 대한 내적 만족으로 인한 동기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총 1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결정성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자기결정성동기가 높다는 것은 학습자가 행위 주체자로서 자유의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Cha와 Eom [25]의 연구에서 자기결정성동기 전체의 Cronbach's α =.90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91이었다.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는 확인된 조절동기 .85, 내적조절동기 .91이었다.

2.3.3 대인관계조화

대인관계조화는 개인이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개인의 정서, 인지, 행동이 조화를 이루어 통합적으로 기능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Kim과 Park [26]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부요인은 인지 9문항, 정서 10문항, 행동 9문항의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상황에서 개인의 인지 및 정서 및 행동 측면에 조화를 이루어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Kim과 Park [26]의 연구에서 대인관계조화 전체의 Cronbach's α =.85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93이었다.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는 인지 .85, 정서 .86, 행동 .88이었다.

2.3.4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과 Park [27]이 개발한 척도를 Lee [28]가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부요인은 자신감 8문항, 과제난이도 10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의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Lee [28]의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의 Cronbach's α =.82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89이었다.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는 자신감 .89, 과제난이도 .85, 자기조절효능감 .88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자료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다. 해당 간호학과 의학과장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조사 허락을 구하였다. 설문지는 반대표를 통해 배포되었으며 설문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을 읽도록 하였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 후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과 아울러 중도 철회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안내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평균 10분에서 15분이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자기결정성동기, 대인관계조화,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01세이고 여학생이 178명(80.9%)이었다. 1학기에는 182명(82.7%), 2학기에는 33명(15%)이 비대면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였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적어도 1개 교과목 이상을 대면으로 수강하였다. 간호학을 선택한 동기는 적성이 122명(5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 타인 권유, 성적 순서이었다. 1학기 성적은 3.0~3.99가 154명(70%)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20)

Variables	Categories	M±SD	
		N	%
Age(yr)	Total	21.01±4.7	
	≤19	146	66.4
	20~24	39	17.7
	25~29	26	11.8
	≥30	9	4.1
Gender	Male	42	19.1
	Female	178	80.9
1st semester face-to-face learning experience	Yes	38	17.3
	No	182	82.7
2nd semester face-to-face learning experience	Yes	183	85
	No	37	15
Motivation for choosing major	Aptitude	122	55.5
	Grades	5	2.3
	Recommend	30	13.6
	Employment	63	28.6
1st semester grades	≥4.0	33	15
	3.0~3.99	154	70
	≤2.99	33	15

3.2 대상자의 자기결정성동기, 대인관계조화,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호학과 신입생의 자기결정성동기, 대인관계조화,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수는 Table 2와 같다. 자기결정성동기의 경우 확인된 조절동기 4.03점, 내적 조절동기 3.02점 전체평균은 3.53점이었다. 대인관계조화는 인지 4.23점, 정서 3.93점, 행동 4.02점이고 전체평균은 4.06점이었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과제난이도 2.77점, 자기조절효능감 3.62점, 자신감 3.01점 그리고 전체 학업적 자기효능감 평균은 2.77점이었다.

Table 2. Mean score of variables (N=220)

Variables	M±SD	Min~Max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3.53±0.64	1.6~5
Identified regulation motivation	4.03±0.59	2~5
Intrinsic regulation motivation	3.02±0.85	1~5
Interpersonal harmony	4.06±0.51	2.6~5
Recognition	4.23±0.53	2.4~5
Emotion	3.93±0.62	2.5~5
Behavior	4.02±0.59	2.4~5
Academic self-efficacy	2.77±0.45	1.5~4.1
Confidence	3.01±0.89	1.1~5
Challenge difficulty	2.77±0.61	1~4.4
Self-regulation efficacy	3.62±0.60	1.9~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파악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1학기 대면수업 경험($t=-2.71, p=.007$)

과 전공선택이유($F=6.17,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학기에 1개 교과목 이상 대면으로 수강한 학생이 전체비대면으로 수강한 학생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았으며 적성에 의해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이 취업이 잘 되어서 간호학을 선택한 학생에 비해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3. Comparison of academic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20)

Variables	Categories	M±SD	t/F(p) Scheffé
Age(yr)	≤19	2.77±.46	0.38 (.765)
	20~24	2.80±.37	
	25~29	2.71±.57	
	≥30	2.89±.29	
Gender	Male	2.84±.39	-1.02 (.305)
	Female	2.76±.47	
1st semester face-to-face learning experience	Yes	2.95±.43	2.71 (.007)
	No	2.73±.45	
2nd semester face-to-face learning experience	Yes	2.76±.45	1.01 (.316)
	No	2.84±.46	
Motivation for choosing major	Aptitude ^a	2.88±.44	6.17 (.001) a>d
	Grades ^b	2.40±.30	
	Recommend ^c	2.73±.45	
	Employment ^d	2.62±.44	
1st semester grades	≥4.0	2.79±.49	1.09 (.338)
	3.0~3.99	2.79±.45	
	≤2.99	2.77±.45	

3.4 자기결정성동기, 대인관계조화,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Table 4와 같이 자기결정성동기($r=.59, p<.001$), 대인관계조화($r=.56, p<.001$)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220)

Variables	Academic self-efficacy $r(p)$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59 (.001)
Interpersonal harmony	.56 (.001)

3.5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학과 신입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1학기 대면수업 경험, 전공선택 이유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기결정성동기와 대인관계

조화를 독립변수로 회귀모델에 포함하였다. 독립변수 중에 1학기 대면수업 경험과 전공 선택이유는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디자인된 회귀모델의 공차는 .77에서 .97사이로 산출되었으며 VIF 범위는 1.02~1.29 이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본 회귀모델이 다중공선성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실시한 Durbin-Watson값 역시 1.88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1학기 대면수업 경험, 전공 선택이유, 자기결정성동기와 대인관계조화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총변동의 47.9%를 설명하였으며 ($F=34.57, p<.001$), 1학기 대면수업 경험, 자기결정성동기와 대인관계조화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학기에 1개 교과목이라도 대면으로 수업한 학생이 전체비대면으로 수강한 학생에 비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자기결정성동기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조화가 좋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academic self-efficacy (N=220)

Variables	β	t	p
1st semester face-to-face learning experience	.09	2.01	.045
Motivation for choosing major (grades)	-.05	-1.01	.312
Motivation for choosing major (recommend)	.01	.29	.767
Motivation for choosing major (employment)	-.07	-1.32	.188
Self-determination learning motivation	.41	7.34	<.001
Interpersonal harmony	.37	6.84	<.001

$R^2=.493$ Adjusted $R^2=.479$ $F=34.57$ $p<.001$
 Dummy coded (Reference: 1st face-to-face learning experience=0, Motivation for choosing major=Aptitude 0)

4. 논의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간호학과에 입학한 2개교 신입생의 자기결정성동기, 대인관계조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확인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토대로 간호대학생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자기결정성동기는 5점 만점에 3.53점이며 확인된 조절동기(4.03점)가 내적 조절동기(3.02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COVID-19 이전에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13]와 폴리텍대학 재학

생[10]과 전문대학생에게 적용한 연구[25]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확인된 조절동기 점수가 내적 조절동기 점수보다 높은 것은 본 연구결과와 같은 양상이었다. 한편, COVID-19 상황에서 진행된 온라인 수업에서 대학생의 학습동기를 조사한 연구의 1학년 자기결정성동기는 2.87점으로 2, 3학년에 비해 높았으나 본 연구결과보다는 낮은 점수였다[29]. 이는 타 학과에 비해 간호대학생의 자기결정성동기가 높으며, 그중에서도 신입생의 자기결정성동기가 높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20년도에는 COVID-19의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도에는 COVID-19 상황에 대하여 대처 능력이 생기면서 대학은 학생에게 대면 수업에 대한 선택권을 주기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에는 2021년도 1학기에는 82.7%의 학생이 전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였다가 2학기에는 85%의 학생이 1개 교과목 이상 대면 수업에 참여하였다. 대학에 입학하여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학습이나 교과 외 활동에 스스로의 의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자기결정성동기가 높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생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에 대한 내적 만족보다는 학습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용하여 행동으로 표출하므로 교수자는 간호학과 학생이 대상자의 질병회복이나 건강유지에 올바른 간호지식을 적용하는 간호사로 양성되도록 학년이나 교과목 특성에 맞는 교수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대인관계조화는 5점 만점에 4.06점으로 신입생의 대인관계조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수는 인지, 행동, 정서 순서였다. COVID-19시기에 같은 도구로 적용한 연구가 미흡한 관계로 COVID-19 이전의 연구와 비교해보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조화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30]에서 1학년은 3.76점이었고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6]에서는 3.88점으로 1학년보다는 조금 높았으나 본 연구의 결과보다는 낮았다. 이는 COVID-19 상황으로 인하여 학습자가 모두 등교하여 대학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인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COVID-19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대인관계조화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교내실습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2학년 이후에 간호학과 학생의 대인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COVID-19 시기에 간호학과 교육과

정을 이수한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 임상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대상자들과 함께하면서 더 많은 대인관계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특성 중에 2021학년 1학기에 1개 교과목이라도 대면으로 수업에 참여한 집단과 적성에 의해 간호학을 선택한 집단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5점 만점에 2.77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업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스스로 대면 수업을 선택하였을 것이며, 취업이 잘되어서 간호학을 선택하기보다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간호학을 선택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COVID-19 시기에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와 COVID-19 이전에 실시된 연구 모두 3.0점 이상으로 본 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31-36]. 간호대학생은 학업적 과제를 수행하도록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능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집단[32]이지만 COVID-19 시기에 신입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다른 학년이나 COVID-19 이전보다 낮은 점수는 신입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수는 자기결정성동기나 대인관계조화 점수와는 다르게 비교연구보다 낮게 나왔는데 이는 온라인수업에서 대면수업으로 수업형태가 변경되거나 혼합되면서 새로운 어려움을 접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대학은 대면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과목 담당 교수와 지도 교수는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교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결정성동기, 대인관계조화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1학년 1학기에 1개 교과목이라도 대면으로 수강한 집단, 자기결정성동기, 대인관계조화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동기, 대인관계조화 모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여 먼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여러 대상자를 연구한 결과 모두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13, 37-38]. 학습자가 행위 주체자로서 타인에 의한 것이 아닌 자유의지로 행동하는 것이 학습영역에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교수자는 교과목과 간호학과와의 연관성을 설명하여 학습자의 교과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학습자가 수업, 팀활동 그리고 과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조화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어 유사한 개념의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인관계능력과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와 비교하고자 한다. 대학생에게 학습 튜터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고한 연구,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조화 관계를 분석한 연구,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을 살펴본 연구, 간호대학생과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모두 양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30, 39-43]. 이는 자기효능감에 대인관계가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만족스런 대인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자신을 알고 타인을 이해하며 서로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 시기는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여 성숙한 대인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는 교과활동에서 이루어지는 팀활동, 직활동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교과 외 활동에도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자율성을 주는 경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팀이나 짝을 구성할 때 학습자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선배나 동기를 연결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의 설명력은 47.9%이었고 1학기에 대면수업을 경험한 집단, 자기결정성 동기와 대인관계조화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을 탐색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인 만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의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앞에서 자기결정성동기와 대인관계조화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제시하였으며,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온라인 수업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과 수업환경이 37.7%를 설명하였는데 [43], 수업환경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서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화를 이루는 것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요인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치위생과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교우관계가 영향요인을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44]. COVID-19 영향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수업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

학과 신입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키우기 위하여 자기결정성동기를 지지하고 대인관계를 조화롭게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개 지역 간호대학생 1학년을 표본으로 수행되어 연구 결과를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되므로 4개 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실습을 이수한 후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대인관계나 스트레스를 파악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5. 결론

COVID-19 상황에서 간호학과에 입학한 2개교 신입생의 자기결정성동기, 대인관계조화,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확인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대인관계조화, 자기결정성동기, 학업적 자기효능감 순서로 점수가 높았으며 모두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다. 자기결정성동기, 대인관계조화 모두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상담에 꾸준히 참여하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면서 이는 대학 생활 적응으로 이어질 것이다.

REFERENCES

- [1] E. J. Baek. (2019). *Mediation effects of parental autonomy support, autonomy support of instructors and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in relationships between perfectionism and learning flow of university students*. Docto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2] R. W. Baker & B. Stryk.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3] <https://www.academyinfo.go.kr/index.do>
- [4] J. H. Park & H. S. Park. (2019). Development and effects of the self-determination improve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competence enhance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8(3), 236-247. DOI : 10.12934/jkpmhn.2019.28.3.236
- [5] N. Y. Lee & J. Y. Han. (2020). Effects of self-determinative motivation and learning participation on academic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 455-467.
- [6] J. H. Lee. (2012). *Mediation on effect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on perceived autonomy support and academic performance*.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7] J. P. Moore & S. A. Hardy. (2020).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substance use abstinence motivations and substance use behaviors in adolescence: A self-determination theory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88(4), 735-747. DOI : 10.1111/jopy.12522
- [8] J. H. Kim & M. K. Park. (2018).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ing flow on in self-regulated learning: mediating effect of meta cogni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2), 349-357. DOI : 10.15207/JKCS.2018.9.2.349
- [9] R. M. Ryan & J. P. Connell.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49-761.
- [10] S. H. Shin, K. J. Jeong & M. J. Kim. (2020).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self-determining motivation, career decision making of polytechnic students. *Korean Review of Corporation Management (KRCM)*, 11(3), 171-189.
- [11] K. A. Shogren, M. L. Wehmeyer & K. L. Lane. (2016). Embedding interventions to promote self-determination within multitiered systems of supports. *Exceptionality*, 24, 213-224.
- [12] H. K. Cho. (2018). The influences on the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due to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2), 475-483. DOI : 10.15207/JKCS.2018.9.12.475
- [13] Y. M. Cho & S. L. Kang. (2019). Effect of simulation-problem based learning education on self-determined motiva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regula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1), 25-41. DOI : 10.22251/jlcci.2019.19.11.25
- [14] M. Y. Jang, K. H. Kong & E. J. Heo. (2021).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self-determination theory, career self-efficacy and learning flow.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12(2), 2241-2256. DOI : 10.22143/HSS21.12.2.158
- [15] M. R. Alligood. (2005) Rethinking empathy in nursing education : shifting to a developmental view. *Annual Review of Nursing Education*, 3, 299-309.
- [16] Y. S. Yang, S. H. Hong & J. L. Ryu. (2020). Effect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nunchi on interpersonal harmon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7), 75-83.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07.075>
- [17] S. H. Kim & G. H. Park. (2008). The development of the interpersonal harmony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2), 375-389. DOI : 10.15703/kjc.9.2.200806.375
- [18] S. H. Kim & G. H. Park. (2010). The development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1(1), 375-393. DOI : 10.15703/kjc.11.1.201003.375
- [19] D. D. Kim, G. W. Song & Y. G. Kim.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anxie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8, 370-371.
- [20] J. E. Yi & H. W. Kwak. (2016).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1), 527-537. DOI : 10.14400/jdc.2016.14.11.527
- [21] S. J. Lee, J. K. Kim & W. J. Kim (2020). The effects of self-induc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4), 1251-1265.
- [22] M. Y. Moon. (2020). Influence of empathic ability and self-efficacy on problem 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3), 277-292. DOI : 10.22251/jlcci.2020.20.3.277
- [23] A. Y. Kim. (2010). Self-determin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in educational setting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4(3), 583-609.
- [24] B. G. Bak, J. U. Lee & S. P. Hong. (2005). Reconstructing the classificatory pattern of learning motivation proposed by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3), 699-717.
- [25] Y. M. Cha & W. Y. Eom. (2018). Structural relations among autonomy support,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learning flow as perceived by juni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14(1), 27-51.

- [26] S. H. Kim & G. H. Park. (2008). The development of the interpersonal harmony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9(2), 375-389. DOI : 10.15703/kjc.9.2.200806.375
- [27] A. Y. Kim & I. Y. Park. (200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1(9), 95-123.
- [28] J. A. Lee. (2012). Mediating effect of outcome expectations in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self-efficacy to major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3(5), 2329-2344.
- [29] S. H. Park & S. I. Han. (2020). Differences of learning motiv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according to their previous online learning experience under the COVID-19 situ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1), 911-934.
- [30] J. E. Yi & H. W. Kwak. (2017). Relation of DISC behavioral styles, self efficac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Health Communication*, 12(1), 31-40. DOI : 10.15715/kjhcom.2017.12.1.31
- [31] G. S. Kim & Y. J. Yoon. (2021).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self-resilience,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n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1), 244-253. DOI : 10.22156/CS4SMB.2021.11.01.244
- [32] C. R. Gil. (2021). Relationship betwee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ing flow,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12), 617-626. DOI : 10.14400/JDC.2021.19.12.617
- [33] E. Lee. (2021). Affecting factors the academic burnout in nursing students of non-face-to-face class in COVID-19 situation.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4), 1011-1030.
- [34] J. H. Kwon & B. S. Choi. (2020).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professionalism-for first grader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5), 297-304. DOI : 10.14400/JDC.2020.18.5.297
- [35] J. Y. Kim, H. O. Kim & M. H. Lee. (2019). Academic achievement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academic self-efficacy: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5(2), 205-213. DOI : 10.4094/chnr.2019.25.2.205
- [36] M. S. Ko. (2019).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nursing student's happiness. *Korean Journal Health Communication*, 14(2), 85-92. DOI : 10.15715/kjhcom.2019.14.2.85
- [37] M. S. Kim. (2019). Effects of parental structure provision on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engagement via mediation of children's self regulation efficacy and autonomous motiva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autonomy suppor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3(1), 27-50. DOI : 10.17286/KJEP.2019.33.1.02
- [38] J. H. Kim. (2019).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nd career identit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in the male high school student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10), 613-634.
- [39] J. S. Kwag & S. H. Woo. (2019). Effects of academic tutoring progra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The Korea Contents Society*, 18(7), 272-281. DOI : 10.5392/JKCA.2018.18.07.272
- [40] E. M. Shin, J. W. Lee & H. S. Lee. (2021).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on self-esteem: focusing on the double medi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effica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4), 177-183.
- [41] E. J. Park & G. S. Jeong. (2020). Nursing students' college-related stress,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skill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8(3), 153-162.
- [42] S. H. Kim & J. S. Kim. (2020). Predictors of emotional lab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turnover intention and self-efficacy on job stress in new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11), 547-558.
- [43] Y. M. Ko & S. M. Han. (2021). Influence of online lecture quality, self-leadership on academic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4), 327-336. DOI : 10.15207/JKCS.2021.12.4.327
- [44] H. W. Cheon & M. J. Jun. (2019). The effects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and peer relations upon academic self-efficacy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11), 159-170. DOI : 10.22156/CS4SMB.2019.9.11.159

김민숙(Min-Suk Kim)

[정회원]



- 2011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현재 : 백석문화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
- E-Mail : mskim9597@bscu.ac.kr

송미순(Mi-Soon Song)

[정회원]



- 2018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22년 4월~현재 : 대전원명학교 교사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 보건교육, 기초간호
- E-Mail : trsong@hanmail.net